

##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융합적 관계

장경애<sup>1</sup>, 허성은<sup>2</sup>

<sup>1</sup>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부교수, <sup>2</sup>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조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Kyeong-Ae Jang<sup>1</sup>, Seong-Eun Heo<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부산시내에 위치한 지역대학 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흡연 비경험자가 흡연 경험자보다 칫솔질과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점수가 각각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칫솔질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 삶의 질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흡연경험의 유무는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유학생활동을 위해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인, 유학생, 흡연경험,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Chinese students in a university in Busa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of Chinese stude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analyzing collected data with the SPSS 24.0 program showed that students without smoking experience had higher scores in brushing,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an those with smoking experience. Brushing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al health quality of life, which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smoking experience was associated with oral health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foreign students.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by conveying the necessity of developing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healthy living of foreign students.

**Key Words** : Chinese, Foreign students, Smoking experience, Self-efficacy,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rresponding Author : Seong-Eun Heo(gjtjddms0928@naver.com)

Received February 18, 2019

Revised March 20, 2019

Accepted April 20,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 추세와 함께 교육 시장의 국제적 개방으로 최근, 국내 대학들의 국제적 인지도 확장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5년 4월 기준 91,332명으로 2014년 84,891명에 비해 6,441명이 증가하였으며[2], 2016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학생 층원과 인제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1,3,4].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Study 2020 Project'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만 명까지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5]. 특히,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2016년 60,136명인 전체의 57.7%를 차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3], 한·중 문화의 상호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2,6,7].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여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생활 관리 체계 및 유학생 관리 역량 강화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8],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의 필수요건을 문화적응이라 보았다[9]. 사회·문화적 환경은 유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유학생의 건강상태는 유학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된다[1,10].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중 문화협회의 연구 결과, 유학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문화적 차이와 의료 문제라 보고하여 이들의 건강한 유학생생활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11].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와 문화,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12-14]. 결국,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로 바쁜 성인기를 보내는 동안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자신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워[15-17],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구강건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구강건강관리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18]. 최근 건강을 평가하는 개념의 변화는 건강상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건강은 완전한 건강상태라 보지 않는다[19]. 즉, 구강건강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강상태 파악에 있어서 구강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융합적 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0-22]. 흡연은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23,24], 흡연경험은 건강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5].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율은 23.9%로 연령집단으로 보았을 때 19세~29세의 흡연율이 25.4%를 차지해 30세~39세에 이어 높은 흡연율을 보고하고 있다[25]. 대학생의 생활양식은 성인 이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건강행위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금연을 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연령층은 대학생이라 할 수 있다[26,27]. 이에 건강 및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실천을 위한 금연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 고찰에 따르면 흡연은 건강 및 구강건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흡연과 구강건강관련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진행되어 흡연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18,20,21,25,28]. 즉,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로 이들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과 관련한 구강건강 관련 연구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역량 강화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이들의 효율적인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규명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로, 조사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지역대학 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분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8년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회수된 총 178부의 설문지 중 성실히 답변한 15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 2.2.1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은 최[29]가 사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관련 변수는 총 2개의 요인으로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 6문항,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7문항인 총 1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3점, ‘매우 아니다.’ 1점으로 평점 하여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29].

#### 2.2.2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인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개념적 모형을 바탕으로[30], 지난 1년 동안 대상자들이 구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내용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항상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평점 하여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흡연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

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의 조건하에 최소 표본 크기는 150명으로 최소표본 크기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총 178부의 설문지 중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154부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칫솔질 자기효능감 0.927,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0.858,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0.982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국 유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47.4%, 여자가 52.6%로 나타났고, 연령 분포는 26~30세가 51.3%, 21~25세 31.8%, 31~35세 11.7%, 36세 이상 5.2%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48.7%, 대학교 재학 중 34.4%, 전문대학 재학 중 6.5%,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5.8%, 어학연수 중 2.6%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의 유무는 무 68.2%, 유 31.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 Classification     | Categories                                 | N   | %     |
|--------------------|--|-----|-------|
| Sex                | Male                                       | 73  | 47.4  |
|                    | Female                                     | 81  | 52.6  |
| Age                | 21~25                                      | 49  | 31.8  |
|                    | 26~30                                      | 79  | 51.3  |
|                    | 31~35                                      | 18  | 11.7  |
|                    | More than 36                               | 8   | 5.2   |
| School register    | Junior college                             | 10  | 6.5   |
|                    | University                                 | 53  | 34.4  |
|                    | Graduate school master's program or higher | 75  | 48.7  |
|                    | Graduate school PhD. program or higher     | 9   | 5.8   |
|                    | Language training                          | 4   | 2.6   |
|                    | Others                                     | 3   | 1.9   |
| Smoking experience | Yes  | 49  | 31.8  |
|                    | No   | 105 | 68.2  |
| Total              |  | 154 | 100.0 |

### 3.2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은 Table 2와 같다.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 평균은 흡연 경험자가 1.96점, 흡연 비경험자 2.28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시험 기간에도 칫솔질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1.96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아무리 바빠도 칫솔질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30점, 흡연 경험자는 1.88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휴일, 주말에도 하루 2번 이상은 칫솔질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2.23점, 흡연 경험자는 1.86점으로 나타났다( $p<0.01$ ).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칫솔질은 꼭 한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32점, 흡연 경험자는 2.00점으로 나타났다( $p<0.01$ ).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29점, 흡연 경험자는 1.98점으로 나타났다( $p<0.01$ ).

Table 2. Brushing-Related Self-Efficacy depending on Smoking Experience

| Characteristic   | Smoking Experience |           | <i>p</i> |
|--|--------------------|-----------|----------|
|  | Yes                | No        |          |
|  | M±SD               |           |          |
| Despite tiredness, I brush my teeth without fail.                        | 2.00±0.76          | 2.32±0.58 | 0.004**  |
| I can brush my teeth in the right way.                                   | 2.06±0.69          | 2.21±0.51 | 0.138    |
| I can brush my teeth at least twice a day even on holidays and weekends. | 1.86±0.76          | 2.23±0.64 | 0.002**  |
| I cannot sleep unless I brush my teeth before going to bed.              | 1.98±0.78          | 2.29±0.53 | 0.005**  |
| I can brush my teeth no matter how busy I am.                            | 1.88±0.73          | 2.30±0.63 | 0.001**  |
| I can regularly brush my teeth.  | 2.00±0.59          | 1.96±0.74 | 0.008**  |
| I can brush my teeth even during the exam period.                        | 1.96±0.74          | 2.34±0.55 | 0.001**  |
| Total  | 1.96±0.64          | 2.28±0.46 | 0.002**  |

### 3.3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Table 3과 같다.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평균은 흡연

경험자가 1.54점, 흡연 비경험자 1.86점으로 나타났다( $p<0.01$ ). ‘구강건강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를 챙겨 먹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1.63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치과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열심히 받을 의지가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2.02점, 흡연 경험자는 1.59점으로 나타났다( $p<0.01$ ). ‘외출 중에도 칫솔과 치약을 휴대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1.87점, 흡연 경험자는 1.57점으로 나타났다( $p<0.05$ ). ‘구강건강을 위해 단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1.69점, 흡연 경험자는 1.41점으로 나타났다( $p<0.05$ ).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흡연 비경험자의 자기효능감은 1.63점, 흡연 경험자는 1.47점으로 나타났다( $p<0.01$ ).

Table 3. Oral Health-Related Self-Efficacy depending on Smoking Experience

| Characteristic  | Smoking Experience |           | <i>p</i> |
|---|--------------------|-----------|----------|
|   | Yes                | No        |          |
|   | M±SD               |           |          |
| I can carry a toothbrush and toothpaste while I am out.               | 1.57±0.64          | 1.87±0.70 | 0.014*   |
| I can eat fruits or vegetables for my oral health.                    | 1.63±0.72          | 2.09±0.65 | 0.001**  |
| I can invest my time and effort to get information about oral health. | 1.47±0.68          | 1.73±0.76 | 0.040*   |
| I can get oral health checkup before oral health problems occur.      | 1.59±0.67          | 1.77±0.73 | 0.150    |
| If I need dental treatment, I have a will to receive the treatment.   | 1.59±0.70          | 2.02±0.67 | 0.001**  |
| I can avoid eating sweet foods for oral health.                       | 1.41±0.64          | 1.69±0.73 | 0.025*   |
| Total   | 1.54±0.58          | 1.86±0.51 | 0.002    |

\*  $p < .05$ , \*\*  $p < .01$ , \*\*\*  $p < .001$

### 3.4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OHIP-14)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은 Table 4와 같다.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 평균은 흡연 경험자가 2.27점, 흡연 비경험자 2.99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입안의 문제로 식사를 중간에 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24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입안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으신 적이 있으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16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입안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자주 내게 되신 적이 있으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12점으로 나타났다

( $p<0.001$ ). ‘입안의 문제로 맛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02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입안이 좋지 않아서 드시고 싶으신 것을 먹지 못한 적이 있으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64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입안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 적이 있으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2.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16점으로 나타났다( $p<0.01$ ). ‘입안의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인 적이 있으니까?’라는 응답에 흡연 비경험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3.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 경험자는 2.64점으로 나타났다( $p<0.001$ ).

Table 4.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Smoking Experience

| Characteristic  | Smoking Experience |           | <i>p</i> |
|---|--------------------|-----------|----------|
|   | Yes                | No        |          |
|   | M±SD               |           |          |
| Have you ever been uncomfortable due to poor pronunciation caused by a problem in your mouth?                                   | 1.94±1.25          | 2.80±1.19 | 0.001**  |
| Have you ever felt the sensation of taste is worse than before due to the problem in your mouth?                                | 2.02±1.27          | 2.90±1.16 | 0.001**  |
| Have your tongue or bottom of the tongue, cheeks, palate, etc. ever been sore?  | 2.42±1.26          | 2.84±1.16 | 0.046*   |
| Have you ever had difficulty eating food because your mouth is sore?  | 2.49±1.18          | 3.02±1.10 | 0.008**  |
| Have you ever avoided meeting people because you are ashamed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 2.16±1.28          | 2.94±1.26 | 0.001**  |
| Have you ever been nervous a lot for the problem in your mouth?   | 2.65±1.18          | 3.14±1.19 | 0.018*   |
|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you could not eat what you wanted to have as much as you liked because your mouth was not good? | 2.64±1.16          | 3.33±1.16 | 0.001**  |
| Have you ever stopped eating the meal in the middle because you could not eat due to the problem in your mouth?                 | 2.24±1.24          | 3.10±1.14 | 0.001**  |
| Have you ever been restless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 2.36±1.24          | 3.12±1.21 | 0.001**  |
| Have you ever been embarrassed or in an awkward situation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 2.32±1.23          | 2.92±1.13 | 0.004**  |
| Have you ever easily been angry with others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How often have you been?                      | 2.12±1.28          | 2.92±1.03 | 0.001**  |
|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the problem in your mouth was bad enough to bother your daily living?                           | 2.16±1.26          | 3.04±1.20 | 0.001**  |
| Have you ever felt you are less satisfied with your life than before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 2.10±1.27          | 2.98±1.18 | 0.001**  |
| Have you ever been unable to do what you needed to do or what you wanted to do because of the problem in your mouth?            | 2.15±1.33          | 2.94±1.04 | 0.001**  |
| Total   | 2.27±1.11          | 2.99±1.04 | 0.001**  |

\*  $p < .05$ , \*\*  $p < .01$ , \*\*\*  $p < .001$

### 3.5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흡연경험 유무는 칫솔질 자기효능감( $r=0.276$ ,  $p<0.01$ ),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 $r=0.265$ ,  $p<0.01$ ), 구강건강관리 관련 삶의 질 ( $r=0.282$ ,  $p<0.01$ )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칫솔질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 $r=0.454$ ,  $p<0.01$ )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구강건강관리 관련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 삶의 질 ( $r=0.304$ ,  $p<0.01$ )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 4. 논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교육 시장의 국제적 개방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1,2], 이들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흡연에 주목하였다[2]. 그 이유는 흡연이 전 세계적으로 건강증진 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31],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9세~29세의 젊은 층의 흡연율이 전체 흡연율인 23.9%보다 높은 25.4%로 보고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실천을 위하여 금연의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17,25]. 이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경험에 따른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에서 흡연 경험자가 흡연 비경험자에 비해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칫솔질을 할 수 있으며, 시험 기간과 휴일에도 칫솔질 할 수 있다는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29]. 이는 성인의 구강건강실천 결정 요인을 연구한 허[18]의 연구 결과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이 구강검진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청소년

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손 등[31]의 연구 결과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칫솔질과 관련한 구강관리 실천에 있어서 국내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을 비교한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구강관리 및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32]. 따라서 꾸준한 구강건강실천행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함에 따라[18] 외국인 유학생의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된 금연 교육 자료를 토대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서 흡연 경험자가 흡연 비경험자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을 위한 식이조절을 할 수 있으며, 외출 시에도 칫솔을 휴대하는 등 구강건강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진 요인이다[29]. 이는 흡연경험이 구강위생관리능력을 불량하게 할 뿐 아니라[33], 흡연량이 많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34],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 의지가 높다고 보고한 최 외[35]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금연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난 이 외[3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함에 따라 금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연 태도와 의지는 흡연 위험과 금연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그 의지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흡연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37].

셋째,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흡연 경험자가 흡연 비경험자에 비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군인의 구강보건행태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그룹에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1,28], 성인의 건강행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허[20]의 연구 결과 흡연을 포함한 건강행위에 있어서

건강 행위를 실천하는 그룹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균이 높게 나타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박 등[1]의 연구 결과 흡연 경험자 군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만족한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포함한 구강건강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32]. 따라서 국내에서 수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실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한 유학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중국인 유학생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은 장차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내 대학의 국제적 인지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원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로 흡연 예방 교육은 물론 금연 중재를 위한 구강보건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등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의 보다 실제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향상은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대상이 부산 지역 대학 내 중국 유학생에 국한되어 조사했다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많은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의 흡연경험과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흡연 관련 연구를 포함한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증진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REFERENCES

- [1] J. H. Park, B. C. Yu, M. K. Park & M. S. Cho. (2014). Correlation factors to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4), 511-518.  
DOI : 10.13065/jksdh.2014.14.04.511
- [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C&s=moe&m=0309&opType=N&boardSeq=60923>
- [3]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46434>
- [4] S. N. Kim. (2007). A Study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Chinese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0(1), 185-206.
- [5]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995>
- [6] K. S. Lee, S. Y. Bai & C. H. Lee. (2018). The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acculturation stres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5), 231-264.  
DOI : 10.21509/KJYS.2018.05.25.5.231
- [7] C. H. Lim. (2009).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1), 93-112.  
DOI : 10.5934/KJHE.2009.18.1.093
- [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55206>
- [9] J. E. Kim & B. C. Lee. (2013). Impact of accultur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 case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7(2), 43-61.
- [10] E. C. Park. (2015).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eoul: Kye-chuk Munwhasa.
- [11] M. S. Bea. (2010). *Related factors with health behaviors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 buk.
- [12] S. Jung. (2015). *Factors Affecting Medical Care Utiliza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With Focus on the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yeonggi-do.
- [13] H. J. Jin. (2013). Oral Health Behavior and Dental Clinics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0), 4996-5002.  
DOI : 10.5762/KAIS.2013.14.10.4996
- [14] I. S. Lee & H. S. Jeong. (2012). The Need of Health Educa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220-228.

[1] J. H. Park, B. C. Yu, M. K. Park & M. S. Cho. (2014). Correlation factors to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 DOI : 10.5977/jkasne.2012.18.2.220
- [15] Public Oral Health Textbook Development Committee. (2016). *Public oral health*. Seoul: Komoonsa.
- [16] D. S. Kang & H. S. Lee. (2003). Work Loss Caused by Oral Diseases in Korean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7(2), 305-317.
- [17] S. W. Park. (2011). A Review of Cigarette Smoking-related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5), 35-49.
- [18] S. E. Heo. (2017).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Determinants of Oral Health Practice in Adults Aged 20 Years or Old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61-174.  
DOI : 10.15207/JKCS.2017.8.9.161
- [19] S. K. Hee. (2007).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health-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0] S. E. Heo.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 of Subjective Systemic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9), 135-142.  
DOI : 10.15207/JKCS.2018.9.9.135
- [21] M. S. Park & J. H. Jang. (2017).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isk behaviors,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and happiness in soldi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6), 1159-1169.  
DOI : 10.13065/jksdh.2017.17.06.1159
- [22] M. T. John, D. L. Patrick & G. D. Slade. (2002). The German version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 transl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European journal of oral sciences*, 110(6), 425-433.  
DOI : 10.1034/j.1600-0722.2002.21363.x
- [23] A. H. Song & E. J. Jung. (2018). Trends by y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oral health in adu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6), 933-946.  
DOI : 10.13065/jksdh.2010080
- [24] K. H. Jeon, J. Y. Lee & J. E. Lee. (2015). Original Article :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according to smok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5), 889-898.  
DOI : 10.13065/jksdh.2015.15.05.889
- [25]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38>
- [26] H. J. Kim. (201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Drowning Symptoms and Nicotine Dependence on Oral Environment and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1), 379-388.  
DOI : 10.21742/AJMAHS.2018.11.63
- [27] I. H. Choi. (2005). *Effect of agreement on means to achieve smoking cessation goal among male college student smoke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 ju.
- [28] M. K. Kang, H. Y. Seo & Y. R. Choi. (2017). The Convergence effect of oral behavior o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soldi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51-159.  
DOI : 10.15207/JKCS.2017.8.9.151
- [29] B. Y. Choi. (2014). *Effect of Oral Health-Related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Lifestyle for Promoting Oral Health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nbuk.
- [30] Locker, D & Slade, G. (1993). Oral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Journal Can Dent Assoc*, 59(10), 830-844.
- [31] E. J. Son & K. A. Jang. (2015).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5), 805-811.  
DOI : 10.13065/jksdh.2015.15.05.805
- [32] S. U. Yoon, E. S. Lee & Y. N. Park. (2015).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management amo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4), 687-694.  
DOI : 10.13065/jksdh.2015.15.04.687
- [33] S. U. Yoon & W. H. Yang. (2013). PHP index according to toothbrushing behavior and smoke status of some local resi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2), 261-269.  
DOI : 10.13065/jksdh.2013.13.2.261
- [34] M. J. Jeon & S. H. Hwang. (2010).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2), 243-254.
- [35] E. J. Choi & Y. S. Song.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and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3), 485-493.  
DOI : 10.13065/jksdh.2012.12.3.485
- [36] J. E. Yi, J. W. Lee & J. Y. Hong. (2017). Influence of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Nicotine Dependency in the College Male Smoker.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6), 249-258.

DOI : 10.14400/JDC.2017.15.6.249

- [37] M. G. Ji. (2009).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fficacy and Smoking Knowledge on Their Perception on Guidance for Antismoking.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9(1), 25-34.

장 경 애(Jang, Kyeong A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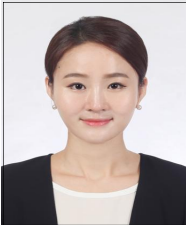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

허 성 은(Heo, Seong Eun)

[정회원]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1년 8월 ~ 2014년 12월 : 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겸임 교수

- 2015년 2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융합연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 E-Mail : js1424@silla.ac.kr